

광주·전남지역 중·고교

‘폭력서클’ 146개 확인

경찰 자료 드러나…시·도교육청선 파악도 못해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에 존재하는 이른바 ‘폭력서클’이 각각 62개, 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에서 ‘짱·일진’(우두머리)을 중심으로 뭉쳐 직·간접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의 존재와 규모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배포한 ‘지역별 중·고교 불량서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광주에는 62개 조직(272명), 전남에는 84개(530명) 학내 폭력서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잠재적인 학교폭력 가해집단이 될 우려가 크고, 성인폭력 조직과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지난 8월 말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3년간 파악하고 있는 학교폭력 서클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를 거쳐 해체하거나 경찰 등과 협조, 해체한 폭력조직도 없다고 보고했다.

‘학내 폭력 집단이 있다’는 방증은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드러났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에는 피해학생 1명당 가해 학생수가 1.3명이

었으나 2008년에는 1.7명, 2009년에는 2.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학생 한 명당 3명의 가해학생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찰과 시·도 교육청의 분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학교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진”과 폭력서클을 분류하기 어려운 데다 그 실체를 학교에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며 “경찰에서 파악한 기준이 무언지 알 수 없으나, 문제가 드러난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폐휴대폰 수거 불우이웃돕기

광주 북구청 자원재활용팀 직원들이 17일 북구 재활용선별센터에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수거한 폐휴대폰을 분류하고 있다. 폐휴대폰 판매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남표 KAIST 총장 물러난다

“내년 3월 자진 사퇴”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내년 3월 자진해 사퇴한다.

서 총장은 17일 서울 서머셋펠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총장 임기가 2014년 7월까지이지만 내년 3월 정기 이사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이어 내년 1월 이사회가 총장 후보 선임위원회를 구성하면 후임자 선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KAIST 이사회는 7월 임시 이사회에서 서 총장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오명 이사장과 서 총장이 협상을 통해 거취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서 총장은 오 이사장에 대해 “(7월 임시 이사회)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자진 사임만 유도하려고 했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현 정부 임기 중 후임 총장을 시급히 선임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서 총장은 2006년 KAIST 총장으로 취임해 연구예산 확대, 교수 정년심사 강화 등 개혁을 추진했으나 성적 부진 학부생에게 징벌적 등록금을 매기고 영어강의를 의무화하자 압박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잇달아 자살한데다 특히 도용과 교수임용 특허 등 의혹으로 교수 사회와 불화를 겪었다. /연합뉴스

전남대 19대 총장 선출 지병문 후보

“공약 실천 TF” 만들어  
명문 전남대 재건 최선”

전남대학교 제19대 총장 재선거에서 선출된 지병문(59·정치외교학과) 후보(1순위)는 “구성원들이 전남대의 도약을 이뤄 달라는 심부름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전남대가 명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병문 후보는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많은 분들과 듣고, 상의하고자 했지만 선거법의 제약으로 부족했다”면서 “구성원들이 함께 한다면 전남대는 반드시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에, 직원들은 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한편 임기 동안 직접 발로 뛰어 정부를 설득

하고, 국회의 도움을 얻어서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병문 후보는 “우수 인재 확보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장학금 확대와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발 벗고 뛰겠다”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 그리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파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타 후보에 비해 많은 공약을 내놓은 지병문 후보는 ‘총장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모든 구성원이 골고루 참여하는 ‘공약 실천 TF’팀을 만들어, 공약을 꼼꼼히 점검하고 계획해 취입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감 혼쭐 장휘국 광주교육감

“지적 사항 겹쳐히 수용”

장 휘국〈사진〉 광주시교육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쳐야 할 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 기자회견을 찾아 전날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교육감은 국감현장에서 크게 지적받았던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중징계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만큼 그에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이들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은 “선처를 바란다는 글을

보내기로 했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했다”며 “개인명의로 보낸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논란이 됐던 교육감 관사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임대하고 이른 시일 안에 관사에서 나오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들어갈 때도 이런 지적이 있어 의논을 많이 했는데 여차피 있는 관사 비워놓지 말자는 의견에 따라 관사에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내놓은 교장 상대 설문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데 대해 “설문대상 등에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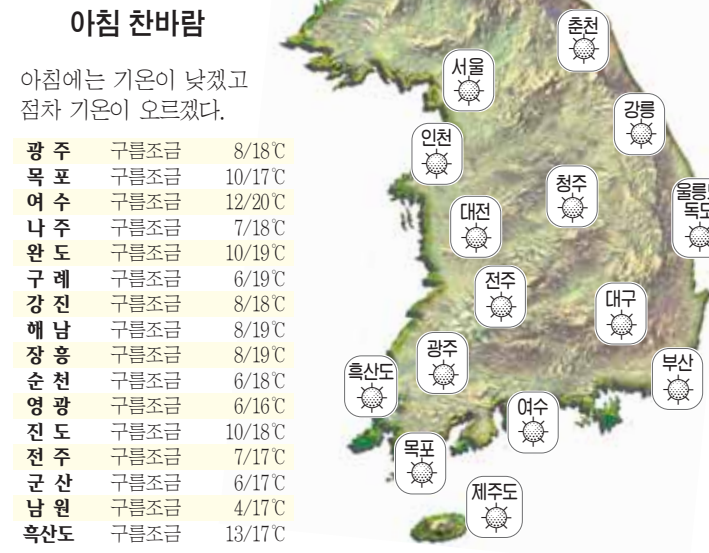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1분  
해지기 17시 54분  
달돋이 09시 37분  
달지기 20시 01분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식중독지수    |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지수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서~북 | 1.0~2.0m |          |       |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1.5~2.5m |          |       |        |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밀물       | 썰물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서~북 | 0.5~1.5m | 목포 03:36 | 08:48 |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1.0~2.0m | 여수 10:52 | 04:11 |        |

| 날 짜   | 19(금) | 20(토) | 21(일) | 22(월) | 23(화) | 24(수)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8/21  | 9/22  | 10/23 | 11/19 | 11/18 | 11/20 |

美·阿 발생 ‘웨스트나일열’ 환자 국내 첫 확인

질병관리본부는 미국과 아프리카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 ‘웨스트나일열’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올해 1~6월 웨스트나일 토착화 지역인 아프리카 기니에서 거주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린 후 증상이 발생해 6월 중순 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6월 말에 귀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6일 환자

발생을 보고받은 후 국립보건연구원 의 검사와 경기도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웨스트나일열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 웨스트나일열 = 웨스트나일(West Nile)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제4군에 속하며 잠복기는 2~14일이다.

동남아 수질 개선 30만달러 UNDP 협력사업 수주

GIST 환경분석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제환경 분석교육연구소(JEAC)는 17일 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수질 향상을 위한 30만달러 규모의 유연개발계획(UNDP) 협력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UNDP 협력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한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중 하나로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자문, 훈련, 위

크스, 교재 개발·발간, 장비지원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수주로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 분석교육연구소는 내년부터 3년간 ‘수질 모니터링과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를 위한 과학 기술 훈련’을 진행한다. 매년 두 차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수질 관련 교수, 연구원 등을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초청해 2주 동안 수질 모니터링 강의·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파워리버캡!

## !그린알로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그린파워리버캡 출시!

그린파워리버캡은 100% 천연식물 밀크씨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 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간 건강지표를 나타내는 효소인 GOT, GPT 수치개선에 도움을 주며, 천연원료 비타민,미네랄(11종)이 에너지 대사 활성을 도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헛개나무열매 추출물, 민들레 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 윤지버섯다실체 추출물, 울금 추출물, 효모추출물(글루타치온) 등 부원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1%유지도 함유하지 않은 정제형 복합기능성 제품입니다.

**섭취대상자**

-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
- 잡은 화식과 야근에 늘 지쳐있으신 분!
- 업무량이 많아 피로하신 분!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그린알로에 제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GMP 인증  
JHSA 인증

그린알로에®는 천연식물성 100%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파워리버캡**  
밀크씨슬, 멀티비타민  
GREEN POWER LIVER CAPS

500mg x 540정(270일분)  
\*알러지성 질환 환자를 위한 알!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